

THE UNITED

INCHEON UNITED F.C. 2015 THE OFFICIAL MATCHDAY PROGRAM OF INCHEON UNITED F.C.

TODAY MATCH



VS



인천유나이티드

부산아이파크

11.08 (일) 오후 2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INTERVIEW

그라운드의 재간둥이
NO.23 윤상호

FA컵 REVIEW

32강부터 결승까지
인천의 2015 FA컵 총 정리

hummel

인천국제공항

K LEAGUE
RESPECT



인천유나이티드
7위 / 12승 11무 12패
(11월 1일 기준)

VS

역대 통산 상대전적
(인천 기준)

9승 9무 17패



부산아이파크
11위 / 5승 9무 21패
(11월 1일 기준)

예상 포메이션



최근 5경기 결과

09.19 H	부산아이파크	2:1 승
09.23 H	울산현대	1:2 패
10.04 A	성남FC	0:1 패
10.17 H	울산현대	2:2 무
10.25 A	광주FC	0:0 무

09.19 A	인천유나이티드	1:2 패
09.23 H	제주유나이티드	0:2 패
10.04 A	포항스틸러스	0:2 패
10.17 H	광주FC	0:1 패
10.24 A	대전시티즌	1:2 패

■ 인천유나이티드
■ 부산아이파크

최근 맞대결 기록
(09.19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의 미소, ‘부산, 반가워’

인천유나이티드가 반가운 상대 부산아이파크를 홈으로 불러들인다. 올 시즌 3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고, 역대 전적에서 13승 16무 8패로 압도적일 정도로 부산만 만나면 강했다. 또한 부산은 최근 12경기 동안 4무 8패로 부진에 빠진 만큼 승리 가능성은 크다.

FA컵 준우승 아쉬움, 승리로 풀어라

인천의 아시아 꿈은 아쉽게 끝났다. 인천은 지난 10월 31일 FC서울과의 FA컵 결승에서 아쉽게 패하며, 우승과 함께 주어지는 AFC 챔피언스 리그(이하 ACL) 진출이 무산되었다. 스플릿 그룹A 진출에 이어 FA컵 우승까지 이루지 못하면서 아쉬운 시즌으로 남았다.

그러나 리그 3경기가 남았다. 유종의 미를 거둬 FA컵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어내야 한다. 부산전은 그 시작이다.

특히 부산전 올 시즌 전승은 의미가 있다. 다음 해 만나더라도 더 자신있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주전 선수들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다. 선수층이 두텁지 않은 팀 사정상 자체 경쟁력을 쌓을 수밖에 없다. 김도훈 감독도 남은 기간 여러 선수를 기용할 뜻을 밝혔다. 남은 시즌 활약을 통해 차후 김도훈 감독에게 눈도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감과 의지가 넘친다면, 부산전 전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강등 벼랑에 선 부산, 무서운 건 간절함

부산은 현 성적은 11위. 클래식 자력 잔류 마지노선인 10위 달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최하위인 12위 대전 시티즌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며, 승점 5점 차로 좁혀났다. 이제 패배는 자동 강등인 최하위 추락을 의미한다. 제대로 빨간 불이 켜진 부산이다. 부산이 클래식

에 잔류하려면 더욱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 잔류를 노리는 부산의 간절함이 살아난다면, 인천의 올 시즌 부산전 4전 전승도 쉽게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인천은 올 시즌 더 이상 목표 달성이 힘든 상황에서 심리 싸움은 밀릴 수밖에 없다. 인천 선수들이 스스로 동기부여를 찾아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전 포인트★

- 올 시즌 부산전 4전 전승 도전
- 최근 4경기 연속 무승(2무 2패) 탈출할까?
- 역대 전적 우위 이어라(13승 16무 8패)
- FA컵 준우승의 아쉬움 털어낼까?

- 11위 잔류 위해 필요한 승리
- 최근 12경기 연속 무승(4무 8패) 부진
- 인천 징크스 타파 도전
- 이정현 vs 케빈, 장신 공격수 맞대결



그라운드의 재간둥이,
윤상호

“남은 경기 목표?
전 경기 출장!”



No.33 윤상호

생년월일 1992.06.04
신체조건 178cm, 70kg

출신학교
금오중 - 안동고 - 호남대

선수경력
2014 인천유나이티드
2014.7 광주FC(임대)
2015~현재 인천유나이티드



Q. 올 시즌 알토란같은 활약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님께서 기회를 주신만큼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 덕분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노력을 알아주신 팬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에요.

Q. 지난해 여름 광주FC로 임대 갔다 오셨는데요, 광주에서의 시간은 어땠나요?

광주로 가자마자 프로 데뷔전을 치렀고 팀도 승격을 이뤘어요. 비록 승격을 돕는 공격포인트를 올리진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잘하고 온 것 같아요. 인천으로 복귀한 후 아직 광주 원정을 가지 못했는데, 광주 원정 경기를 가보고 싶어요.

Q. 지난 16라운드 포항전에서 프로 첫 공격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서의 첫 선발 경기였어요. 상대 수비가 견어낸 공이 저에게 떨어져서 (김)동석이 형의 득점을 도울 수 있었죠.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Q. 그룹A 진출이 좌절되면서 남은 경기의 동기부여를 우려하는 팬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 그룹A에 들어가지진 못했지만 남은 리그 동안 그룹B에서 7위를 유지하고 싶어요. 순위 유지를 위해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Q. 지난 시즌과 달리 올해는 팀 내에 동갑 선수들이 많은데 어때요?

사실 동갑 애들하고는 잘 안모여요(웃음). 저는 주로 (용)재현이 형이나 (김)진환이형 같이 형들과 자주 노는 편이에요. 두 형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Q. 팀에서 가장 호흡이 잘 맞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같은 라인에서 뛰는 (김)대경이 형이랑 (김)동석이 형이요. 특히 동석이 형은 패스가 정말 좋아요. 경기 때 좋은 패스를 보내주시니까 같이 뛰면 편한 것 같아요.

Q. 본인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수원삼성의 염기훈 선수요. 같이 경기를 뛰어봤는데 정말 잘하세요. 정말 존경할 따름입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꼭 닮고 싶어요.

Q. 얼마 남지 않은 올 시즌 본인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공격포인트 보다는 우선 남은 경기 동안 전 경기 출장을 하고 싶어요.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 팀의 7위 유지에 일조하고 싶어요.

Q.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유나이티드 윤상호입니다. 매 경기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즌 동안에도 많이 오셔서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팬분들 앞에서 뛰고 싶고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글 = 홍보마케팅팀 양송희 (yangsonghui@incheonutd.com)
사진 = 이명석 UTD기자(moungsuk75@hanmail.net)

인천, 아시아를 향한 아쉽게도 위대한 도전

인천유나이티드의 '2015 KEB 하나은행 FA컵' 우승 도전기는 결승 문턱에서 아쉽게 실패했다. 그러나 인천은 올 시즌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강호들을 꺾으며 FA컵 결승까지 당당하게 올라왔다. 비록 우승은 아니었지만, 그 위대했던 도전기를 32강전부터 되돌아봤다.



32강 10년 만의 032더비, 기분 좋은 출발

4월 29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 2 : 0 부천

인천과 부천FC의 032더비가 10년 만에 성사됐다. 부천SK(현 제주 유나이티드)의 연고 이전으로 잊혀졌던 032더비가 FA컵 32강전에서 부활했다. 그러나 인연은 잠시 접어둔 인천은 우승을 위해 한 발 나아갔다. 초반부터 밀어붙인 인천은 전반 4분 부천 골키퍼 류원우가 쳐낸 볼을 놓치지 않은 케빈의 선제골로 앞서갔다. 인천은 기세를 이어가며, 완전히 부천을 압도했다. 김진환이 후반 8분 박세직의 코너킥을 헤딩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결국 10년 만에 성사된 032 더비는 인천의 승리로 마무리되었다.



16강 이번의 희생양 될 뻔 했으나...

6월 24일 천안축구센터 천안 0 : 1 인천

인천은 16강에서 내셔널리그 팀인 천안시청을 만났다. 전력 격차가 큰 만큼 신승을 예상했다. 그러나 천안시청은 만만한 팀이 아니었다. 비가 내린 탓에 패스 실수가 자주 나왔고, 오히려 압박 축구를 펼친 천안의 공세에 고전했다. 골키퍼 조수혁의 선방이 없었다면 더욱 어려워질 뻔했다. 이러한 흐름은 후반 중반을 넘어서 계속됐다. 그러나 인천의 저력은 후반 막판에 나왔다. 조수철이 후반 37분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골문 향해 크로스 했고, 김진환이 헤딩 슈팅으로 결승골을 넣었다. 인천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8강 제주는 그저 스쳐갈 뿐

7월 22일 제주월드컵경기장 제주 0 : 2 인천

16강까지 약한 상대를 만났던 인천이 8강에서 제대로 된 상대 제주유나이티드를 만났다. 70년생 개띠 동갑인 김도훈 감독과 조성환 감독의 친구 간 맞대결도 흥미로웠다. 양 팀은 전후반 90분 내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지만, 소득 없이 0-0 무승부로 마무리되었고 결국 연장전까지 갔다. 예측 힘든 연장전으로 흘러가는 듯했지만, 인천은 연장 전반 시작 1분 만에 권완규의 중거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막판 기세를 탄 인천은 연장 후반 1분 김도혁이 원발 슈팅으로 췌기골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으며, 4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4강 상위 스플릿 좌절, 결승 진출로 씩다

10월 14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천 2 : 0 전남

인천은 4강전을 앞두고 상황이 좋지 않았다. 리그에서 2연패를 당했고, 성남FC전 패배로 스플릿 그룹A 진출에 실패한 후유증이 우려됐다. 또한 올 시즌 전남을 상대로 1승 2패로 고전했기에 쉽지 않았다. 예상대로 90분 내내 몰아붙였으나 전남의 골문을 열기 쉽지 않았고 이번에도 연장전으로 이어졌지만, 인천은 막판 뒷심은 무서웠다. 연장 시작 30초 만에 윤상호가 원발 터닝 슈팅으로 전남 골망을 흔들었다. 이어 연장 후반 8분 케빈이 강한 오른발 슈팅으로 췌기골을 넣으면서 인천은 창단 첫 FA컵 결승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결승 최선을 다 했지만... 잘 싸웠던 인천

10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 서울 3 : 1 인천

FC서울은 인천에 반감지 않은 상대. FC서울에 올 시즌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최근 상승세와 토너먼트 특성을 봤을 때 인천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인천은 전반 33분 다카하기의 선제 실점하며 끌려나갔다. 이후 김도훈 감독은 후반 16분 박세직을 빼고 이효균을 투입해 승부를 걸었고, 이는 적중했다. 이효균이 후반 26분 터닝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에 성공했다. 이 기세를 몰아 역전까지 노렸지만, 후반 43분 아드리아노와 종료 직전 물리나에게 연속실점하며 1-3 패배로 아쉬운 준우승을 맛봐야만 했다.

① 포지션
② 생년월일
③ 키 / 몸무게
④ 출신교 / 국적



김도훈 감독



이기형 수석코치



김성일 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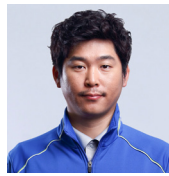
박성철 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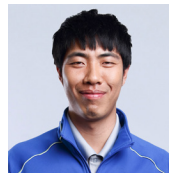
김이섭 GK코치



이승재 트레이너



이동원 트레이너



양승민 트레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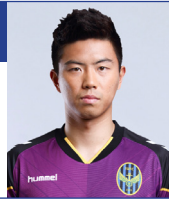
1 유현
YOO HYUN

① GK
② 1984-08-01
③ 184cm/82kg
④ 중앙대



21 조수혁
JO SUHUK

① GK
② 1987-03-18
③ 187cm/80kg
④ 건국대



31 이태희
LEE TAEHUI

① GK
② 1995-04-26
③ 187cm/78kg
④ 대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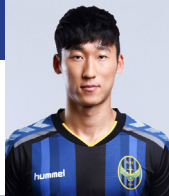
2 권완규
KWON WANKYOO

① DF
② 1991-11-20
③ 175cm/61kg
④ 성균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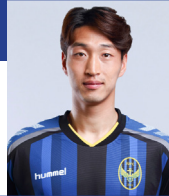
3 김용환
KIM YONG HWAN

① DF
② 1993-05-25
③ 176cm/64kg
④ 숭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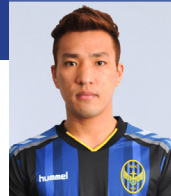
5 김진환
KIM JIN HWAN

① DF
② 1989-03-01
③ 186cm/78kg
④ 경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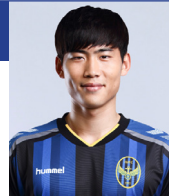
13 용재현
YONG JAE HYUN

① DF
② 1988-07-19
③ 179cm/75kg
④ 건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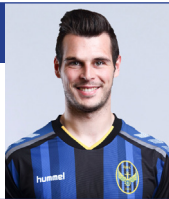
15 김대중
KIM DAEJUNG

① DF
② 1992-10-13
③ 190cm/85kg
④ 홍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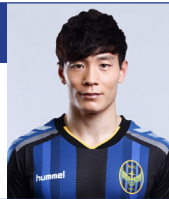
20 요니치
MATEJ JONJIC

① DF
② 1991-01-29
③ 187cm/83kg
④ 크로아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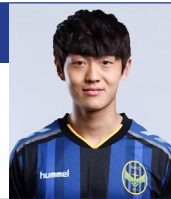
25 박대한
PARK DAE HAN

① DF
② 1991-05-01
③ 170cm/66kg
④ 성균관대



28 백승원
BAEK SEUNGWON

① DF
② 1992-04-18
③ 180cm/75kg
④ 광운대



30 김경민
KIM GYEONGMIN

① DF
② 1990-08-15
③ 184cm/90kg
④ 연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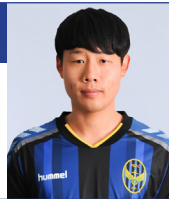
43 김창훈
KIM CHANGHOON

① DF
② 1987-04-03
③ 183cm/76kg
④ 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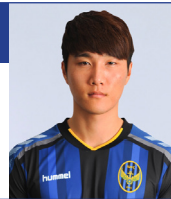
44 지병주
JI BYEONG JOO

① DF
② 1990-03-20
③ 180cm/73kg
④ 인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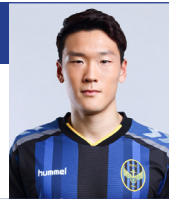
77 이윤표
LEE YUN PYO

① DF
② 1984-09-04
③ 184cm/79kg
④ 한남대



4 김원식
KIM WON SIK

① MF
② 1991-11-05
③ 185cm/75kg
④ 동북고



6 와다
WADA TOMOKI

① MF
② 1994-10-30
③ 172cm/57kg
④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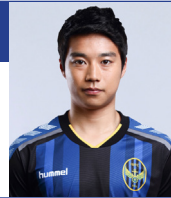
7 김도혁
KIM DOHYEOK

① MF
② 1992-02-08
③ 174cm/69kg
④ 연세대



8 안진범
AN JIN BEOM

① MF
② 1992-03-10
③ 175cm/64kg
④ 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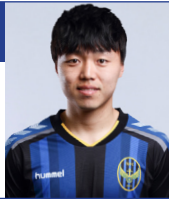
14 이슬기
LEE SEUL GI

① MF
② 1986-09-24
③ 186cm/76kg
④ 동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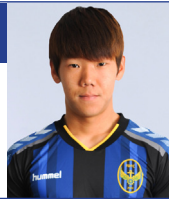
22 김동석
KIM DONGSUK

① MF
② 1987-03-26
③ 174cm/68kg
④ 용강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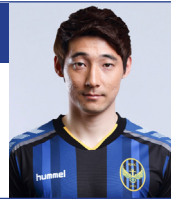
23 윤상호
YOON SANGHO

① MF
② 1992-06-04
③ 179cm/64kg
④ 호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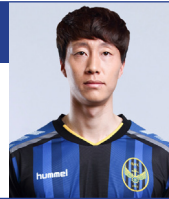
24 박세직
PARK SEJIK

① MF
② 1989-05-25
③ 178cm/73kg
④ 한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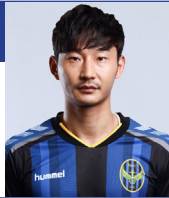
26 조수철
CHO SOOCHUL

① MF
② 1990-10-30
③ 178cm/64kg
④ 우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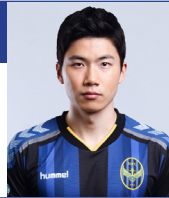
10 이천수
LEE CHUN SOO

① FW
② 1981-07-09
③ 174cm/65kg
④ 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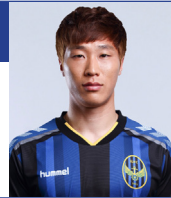
11 김인성
KIM IN SUNG

① FW
② 1989-09-09
③ 180cm/74kg
④ 형곡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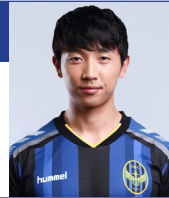
16 이성우
LEE SEONG WOO

① FW
② 1992-07-11
③ 176cm/66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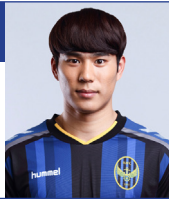
17 김대경
KIM DAEKYUNG

① FW
② 1991-09-02
③ 179cm/70kg
④ 숭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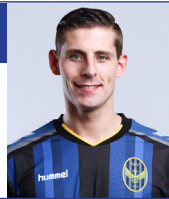
18 진성욱
JIN SEONG UK

① FW
② 1993-12-16
③ 183cm/78kg
④ 대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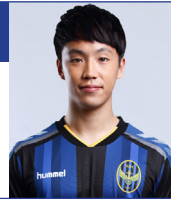
19 케빈
KEVIN ORIS

① FW
② 1984-12-06
③ 192cm/95kg
④ 벨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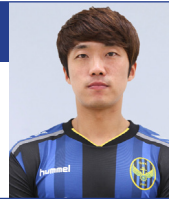
27 이진욱
LEE JINUK

① FW
② 1992-09-11
③ 175cm/60kg
④ 관동대



33 이호균
LEE HYOGYUN

① FW
② 1988-03-12
③ 185cm/80kg
④ 동아대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SNS

facebook

<http://www.facebook.com/incheonutd2003>

twitter

<http://twitter.com/incheonutd>



Play,
Together!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공식후원사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upplie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 인천유나이티드 시즌권으로 축구도 보고~ 식사도 하고! 』

맛있는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그 곳, **드마리스**
Premier Buffet Restaurant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지는 곳, **프라임 마리스**
Enjoyable Place for you



드마리스
(인천점)

프라임마리스
(부평점)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 소지자 : **50%** 할인
동반 5인까지 : **30%** 할인
경기당일 티켓 소지자 : **10%** 할인

드마리스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4-4 지젤타워 3층

프라임마리스 부평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6번지 아이즈빌아울렛 2층

※평일·공휴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12월 한 달만 할인 혜택이 제외됩니다.

invitation to
ELENA KITCHEN



스타셰프 에드워드 권이
함께하는 맛있는 키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0여 가지 음식과 에드워드권의 전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엘레나키친!
즉석 파스타와 스테이크, LAVAZZA 커피도 만나보세요~

엘레나 키친 with
(승의점) 에드워드권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 소지자 : **20%** 할인
경기당일 티켓 소지자 : **10%** 할인

엘레나 키친 승의점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51 홈플러스 지하 3층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은 평일·공휴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발행일 2015년 11월 8일 / 발행처 (주)인천유나이티드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전화 032-423-1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 기사 UTD기자단 취재팀 / 사진 이명석 UTD기자 / 디자인 (주)에스이엠(www.semsports.co.kr)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